

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

2017. 4.



테러정보통합센터
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

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

I 테러 유형별 식별요령

1. 사제폭발물 이용 우편물테러

가. 작동 원리 : 편지 또는 소포 개봉시 내장된 폭발물이 자동으로 폭발 되도록 설계

나. 사제폭발물 구성요소

① 폭 약 (Explosives)	흑색화약(black powder), TNT(Trinitrotoluene), 무연화약, 콤포지션(C-3, C-4), ANFO폭약, 에멀전폭약, 다이ना마이트, 백색화약(white powder, TNT 대체用), PLX, TATP 등
② 기폭장치	뇌관(Initiator)
	전원(Power)
	점화장치(Switch)
③ 용 기(Container)	

* 뇌관이 필요없는 폭약을 이용하는 등 폭발물 종류에 따라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음

다. 식별요령

● 건전지 · 전선 · 딱딱한 내용물이 동봉된 우편물

● 테이프나 끈으로 과도하게 포장된 우편물
외부 충격으로 폭발물이 손상되거나 오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다포장

● 전선줄 · 안테나 등이 빠져나와있는 우편물
외부에서 리모컨 등을 통해 원격 점화시킬 경우, 신호를 잘 받게 하기 위해 노출

- 중앙부분이 유난히 두껍고 딱딱하거나, 포장이 밖으로 나온 우편물
-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,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
- 가장자리가 찌그러졌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우편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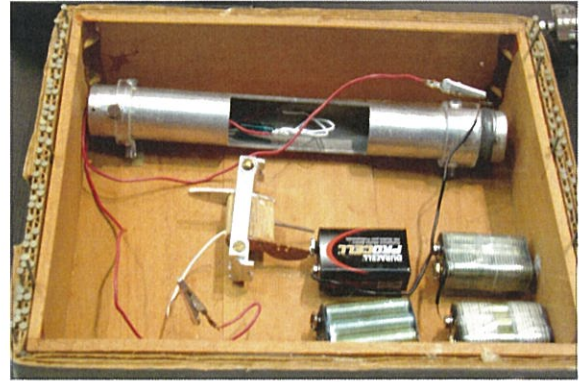
라. 주요 사례

- 1) 2017.3 프랑스 파리 IMF 지부로 배달된 우편물 폭탄이 폭발하여 직원 1명 부상(그리스 극좌 무정부주의 단체 ‘불의 음모단’ 소행 추정)
 - * 같은 시기 독일 재무부 우편실에서 「쇼이블레」 재무장관 앞 소포에서 폭발물이 발견 (엑스레이 검색중 전선형태 발견, 해체)되었으며, 그리스 아테네 수화물 분류센터에서 유럽 각국의 EU 재무관리·기업체 등에 배송 예정이던 우편물폭탄 8개 발견(해체)
- 2) 2015.9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에서 「웨이인용」(韋銀勇, 33세, 사망)이 가져다 놓은 소포폭탄으로 18차례에 걸쳐 연쇄 폭발사건 발생, 총 10명 사망 및 51명 부상
- 3) 2013.4 「가우크」 독일 연방대통령 앞으로 폭발물 HMTD(헥사메틸렌 트리퍼록시드 디아민)가 들어있는 편지 배달, 연방경찰 폭발물 대응팀이 출동하여 처리(사전 적발로 사상자 없음)
- 4) 2010.12 駐이탈리아 스위스·칠레·그리스 대사관에 등기우편 봉투로 포장된 소포폭탄 배달, 스위스·칠레 대사관에서 폭발하여 부상자 발생(무정부주의단체 “FAI, Federazione Anarchica Informale” 소행)
- 5) 「시어도어 카진스키」(일명 “유나바머”¹⁾)는 1978년~1995년간 UC 버클리대·유타대 등 대학교와 항공사 등에 16차례 소포폭탄을 보내 총 3명 사망 및 24명 부상, 1996.4.3 FBI에 체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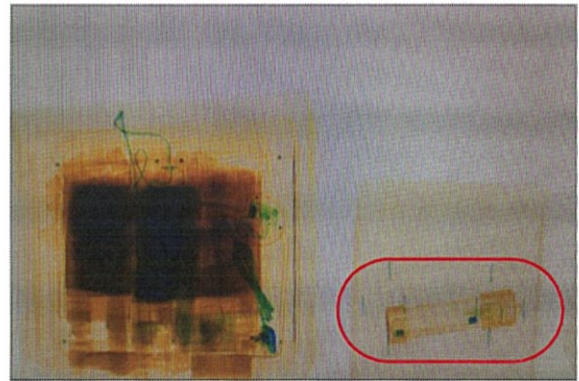
1) 유나바머(Unabomber)라는 별칭은 「카진스키」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, FBI가 同 사건을 UNABOM(UNiversity & Airline BOMber)이라 명명한 데에서 유래



< 전형적인 형태의 소포폭탄 >



< 「카진스키」 제작 소포폭탄(FBI 재현) >



< 국제택배회사 엑스레이 검색중 적발된 파이프형 폭탄 2건(2014년, 유럽) >

2. 화생방물질 이용 우편물테러

가. 작동원리 : 편지 또는 소포에 유독성 화학물질 · 탄저균(백색가루) · 방사성물질 등을 은닉, 개봉시 자동 살포

나. 식별요령

- 겉면에 기름얼룩 · 탄 자국 · 분말 · 결정체가 묻어있거나, 포장색이 변색되어 있는 우편물
- 말랑말랑하여 가루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
- 비닐 등으로 이중 포장되어 있는 우편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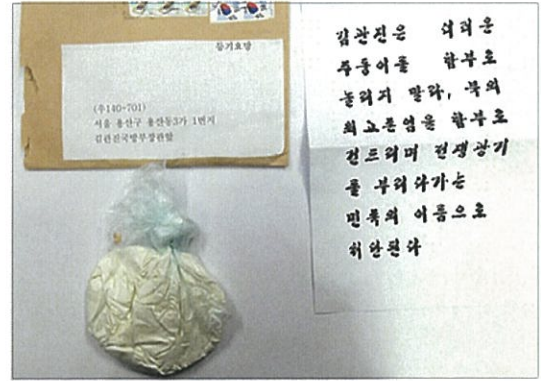
-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, 만졌을 때 눈이 따가운 우편물
- 유리병·캔 등 유독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동봉된 우편물
- 정체불명의 금속물질이 포장되어 있는 우편물
- 만졌을 때 주위보다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는 우편물

라. 주요 사례

- 1) 2013.5 美 오바마 대통령 및 블룸버그 뉴욕시장 앞으로 독극물 리신(ricin)이 든 편지 배달(우편물 검색과정에서 적발, FBI는 '13.6.7 새년 리처드슨 체포, 징역 18년형 선고)
- 2) 2013.4 美 오바마 대통령, 로저 위커 상원위원, 세이디 홀랜드 판사 앞으로 독극물 리신(ricin)이 든 편지 배달(우편물 검색과정에서 적발, FBI는 '13.4.27 에버렛 더쉬케 체포, 징역 25년형 선고)
- 3) 2013.4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탄저균 위장 백색가루(추후 밀가루로 확인) 동봉 소포 배달
- 4) 2008.12 우리나라·영국·독일 등 18개국 美 대사관에 탄저균 위장 백색 분말가루가 들어있는 편지 배달(무해한 물질로 확인)
- 5) 2001.9 탄저균이 묻은 편지가 톰 대술 민주당 상원의원, 톰 브로코 NBC 방송앵커, 사진기자(타블로이드판 신문 '선') 보브 스티븐슨 앞으로 배달, 5명 사망 및 17명 감염, 제독 등에 10억불 경제피해 발생 (FBI는 2008.8 범인이 美 육군 생화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브루스 이빈스 <2008.7 자살>라고 발표)



< 2001년 탄저균 테러에 이용된 편지 >



<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 배달 편지 >

II 일반 식별요령

- 우편물 겉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(수취인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하거나 직책만 기재, 또는 발송인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)
 - 수취인이 주요 기관 또는 주요 인사로 되어 있고, “친전”, “본인 개봉 요망” 등이 표시된 경우
 - 우표를 과도하게 붙였거나, 테이프를 불필요하게 많이 붙인 경우
 - 외국으로부터 온 예기치 못한 우편물
- * '17.3.15 독일 재무장관 앞으로 발송된 소포폭탄의 경우, 소포 발송자를 그리스 정치인·학술기구로 위장, 검색요원들의 경계 이완을 유도하였음을 유의



Ⅲ 적발시 대처요령

1. 의심우편물 발견시

절대로 개봉하거나 옮기지 말고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.

- 던지거나 흔드는 등 충격을 주지 않는다.
-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.
- 조심스럽게 우편물을 내려놓는다.
- 라이터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.
- 외부로 노출된 얇은 줄이나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자르지 않는다.
-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.
리모컨·휴대폰 등으로 원격 점화되도록 제작된 폭발물이 오폭할 가능성 대비
- 백색가루 등 화생방물질이 의심될 경우에는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백 등에 밀봉해 넣는다.
- 가능한 경우, 우편물 접수장소에 방폭담요를 비치해 놓고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면 방폭담요로 덮어둔 후 전문기관에 신고한다.
폭발시 충격을 흡수하여 폭발 범위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대테러장비



< 방폭담요(左) 및 사용법(右) >

- 정교하게 제작·은닉된 폭발물은 엑스레이 검색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우므로 폭발물 대응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.
- 의심우편물 주변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한다.

2. 의심우편물 개봉시

실수로 우편물을 개봉한 경우, 침착하게 다음의 행동을 취한다.

【 사제폭발물 동봉 우편물 】

-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.
- 이후, 기관장·상급관서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
【 화생방물질 은닉 우편물 】

-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손수건으로 코·입을 막는다.
 -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으로, 입자가 무거워 화생방물질의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
- 유해물질 확산이 의심되면 의심우편물 위에 분말소화기를 도포한다. 다만, 우편물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.
 - * 여의치 않을 경우, 임시방편으로 입고 있던 옷이나 천 조각 등을 덮어 놓아 확산 지연
- 창문을 닫고 현장을 밀폐시킨 후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난다.
- 이후, 기관장·상급관서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- 화생방물질이 묻었으면 신속히 옷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되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지 말아야 하며, 입었던 옷은 비닐백에 담아 보관한다.
-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.

【 총기·도검류 동봉 우편물 】

- 발송인 추적을 위해 만지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한다.
- 이후, 기관장·상급관서 보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다.



'06.12 황장엽에게
발송된 도끼 및 협박편지

IV 우편물 반입시 유의사항

- ✓ 소포·우편물은 경비담당자 또는 총무담당자 등이 일괄 접수하여 의심물질 동봉여부를 육안·촉각·검사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 후 반입한다.
- ✓ 의심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.
- ✓ 부피가 큰 우편물·소포·외부반입 물품은 건물 외부에서 개봉하여 내용물 확인 후 반입한다.
- ✓ 개인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경비 또는 총무담당자가 수령인을 동반한 상태에서 개봉하고, 내용물 확인 후 반입한다. 끝.